

2015년 의료해외진출 현황 분석

발행일_ 2016. 3. 3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이영찬

보건산업브리프 2016 Vol.210

통계분석 | 동향·전망 | 인력·정책

의료해외진출지원단 진출정보팀
민경민

I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의료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 및 지원방안 수립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 '15년 12월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 해외진출 시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없었으나, '15년 12월 제정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16년 6월 이후에는 해외진출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므로 신규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신고제 자료를 활용할 예정

II 조사 방법

● 조사대상범위

- 한국 의료법 규정에 의해 국내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 '14년 현황조사 결과 및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된 기 진출 또는 진출 준비 프로젝트 주관기관
 - '11~'15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신청기관
 -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조사방법

- 설문조사지의 온라인툴 개발을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이메일링 또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포털(www.kohes.or.kr)에 연동하여 온라인설문조사 실시
- 온라인설문조사 응답기관 및 2014년 기진출 및 진출준비 기관 대상 전화조사 실시

Ⅲ 결과 분석 내용

2015년 의료 해외진출 조사결과(누적치)

▣ 의료 해외진출 현황 조사 결과, '15년까지 진출·운영 중인 누적건수는 총 141건, 진출준비는 51건, 철수는 44건으로 확인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에 응답한 70개 기관 중, 총 51개 모기관에서 141건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4년 확인된 해외진출 125건 중 미확인 6건, 자선진료소 4건, 철수 8건은 '15년 141건에 반영되지 않았음.

* '15년 추가로 발굴된 진출·운영 건수는 34건으로 확인

- '14년 진출준비로 확인된 27건 중, 12건은 현재에도 계속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1건은 '15년에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4건은 프로젝트를 중단했거나 미확인되었음.

* '15년 추가로 발굴된 진출준비는 39건으로 확인

- '14년도까지 철수한 것으로 확인된 31건*에 추가로 13건(합병포함)이 확인되어, '15년 기준 의료기관 철수건수는 총 44건으로 조사됨(누적치)

* '14년까지 발굴된 32건 중 자선진료소 1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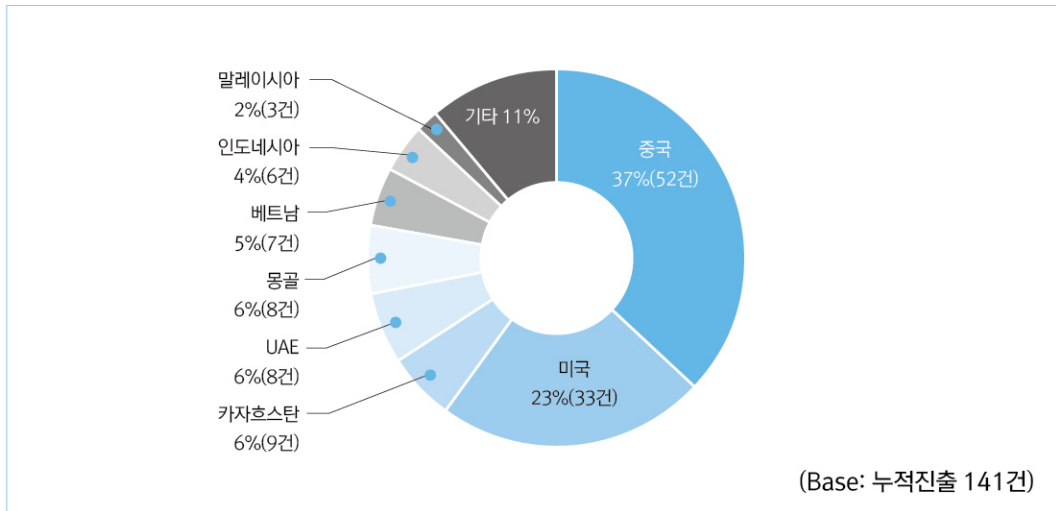
■ 2015년 의료해외진출 운영 현황

◎ 연도별 진출현황

-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5년 18개국에 141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 조사기준을 전년도에 동일하게 적용* 시, '15년 의료해외진출은 전년대비 17% 증가 ('14년 121건→'15년 141건)
- * '14년도 조사 시 의료해외진출(누적 125건)에 포함된 자선진료소 4건은 '15년 진출현황에서 제외

◎ 국가별 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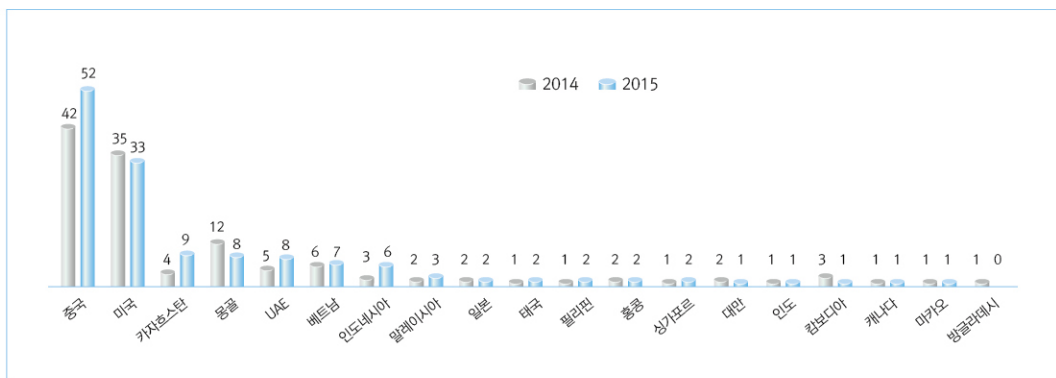
- 의료해외진출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이 중 중국이 가장 큰 비중(37%)을 차지하고 있음.
 - * 홍콩 및 마카오는 별도로 집계하였으며, '15년 조사 시 자선진료소는 제외함에 따라 이전까지 자선진료소 포함국인 방글라데시는 제외('14년 총 19개국 → '15년 총 18개국)
- 국가별로는 중국(52건), 미국(33건), 카자흐스탄(9건), 몽골(8건), UAE(8건)이 상위 5개국으로 집계되었음.
 - 중국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미용·성형분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특구 조성, 해외 투자 장려정책 등 중국 중앙정부의 개방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된 사전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요구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 카자흐스탄 의료해외진출건수 : '14년 4건 → '15년 9건
 - ** 카자흐스탄 외국인환자수 : '13년 2,890명(7위) → '14년 8,029명(6위)
 - 정부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UAE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에 대형병원이 진출하는 등 그간 정부협력의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 서울대병원, UAE 왕립셰이크 칼리파전문병원(이하 SKSH) 개원('15.02) / 서울성모병원, VPS Healthcare Group 마리나 검진센터 개원('15.03)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진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류로 인한 한국 의료 인지도 증가와 함께 정부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계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기관이 해당 진출 국가를 선택한 요인으로는 '특화된 의료기술의 수익창출 가능성(59%)', '현지 파트너의 제안(50%)', '국내 의료시장 포화에 대한 위기의식(41%)' 등이 있었음(21건 응답조사결과, 복수응답기준).



[그림 1] 국가별 진출현황(2015)

*기타 : 싱가포르(2건), 일본(2건), 태국(2건), 필리핀(2건), 홍콩(2건), 대만(1건), 마카오(1건), 인도(1건), 캄보디아(1건), 캐나다(1건)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그림 2] 최근 2년 국가별 진출현황(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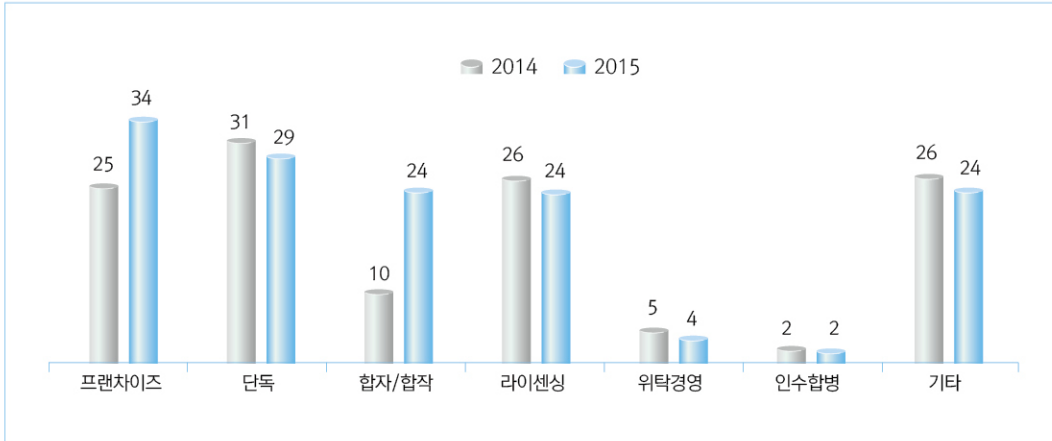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형태별 진출현황

- '15년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진출형태는 프랜차이즈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 투자(29건), 합자·합작(24건), 라이선싱(24건)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진출 모델로 국내 네트워크 의원급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중국 및 동남아에서 한류로 인해 차별화된 브랜드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피부 및 성형외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음.

- 해외 직접투자 형태(단독+합자·합작+인수합병)의 경우 '14년 43건에서 '15년 55건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합자·합작의 경우 의료해외진출이 자본출자를 동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3] 연도별 진출형태 현황(2015)

<표 1> 진출형태별 현황(2015)

진출국	프랜차이즈	단독투자	합자/합작투자	라이선싱	위탁경영	인수합병	기타*	총합
중국	22		11	10			9	52
미국	5	17	1	6		2	2	33
카자흐스탄		3	2	1			3	9
UAE		1		2	3		2	8
몽골		1	1	2			4	8
베트남		2	2	1	1		1	7
인도네시아		1	3	1			1	6
기타*	7	4	4	1			2	18
총합	34	29	24	24	4	2	24	141

(Base: 누적진출 141건)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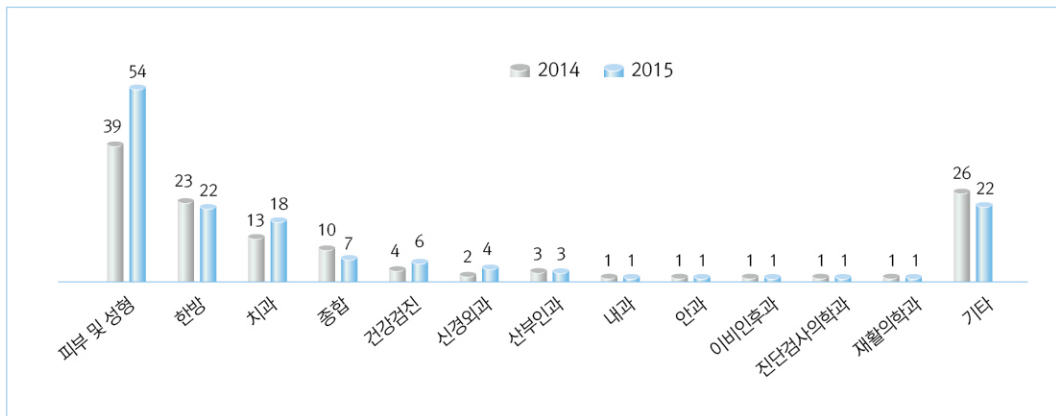
**기타(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무응답포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진료과목별 진출현황

- 주요 진료과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피부·성형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방(22건), 치과(18건), 종합(7건), 건강검진(6건) 순으로 나타남.
- 피부 및 성형과목은 한류 영향권에 있는 중국과 동남아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당진료과의 프랜차이즈 형태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한의원(병원)의 진출이 미국에 집중(82%)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이외에 치과, 건강검진 등 전문특화 진료과의 해외진출 건수도 증가했음 (총 24건).
- 국내 치의학분야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어 치과분야 진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출 모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건강검진센터로 특화해 진출하는 양상을 나타냄.



[그림 4] 연도별 진료과 현황(2015)

<표 2> 진료과목별 현황(2015)

진출국	피부 및 성형	한방	치과	종합	건강검진	신경외과	산부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기타**	총합
중국	34	1	5	2	2				1	1			6	52
미국		18	10	1			2						2	33
카자흐스탄		1	1	1	2	1							3	9
UAE				2	1	2						1	2	8
몽골	1			1	1			1					4	8
베트남	4		1				1						1	7
인도네시아	4					1							1	6
기타*	11	2	1								1		3	18
총합	54	22	18	7	6	4	3	1	1	1	1	1	22	141

(Base: 누적진출 141건)

*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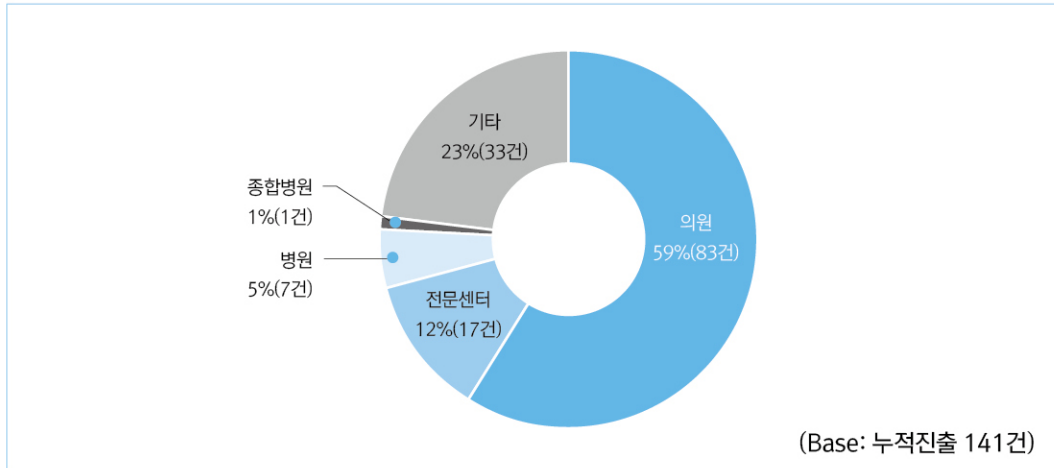
** 기타(진료과) : 하지정맥, 출기세포치료, 연락사무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규모별 진출현황

- '15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된 진출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전문센터*(12%), 병원(5%)순으로 나타남.

* 전문센터 : 해외진출·운영의 특수성을 고려, 병상규모 30미만, 건강검진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진흥원)



[그림 5] 진출 규모별 현황(2015)

* 기타 : 연락사무소, 미응답 등 포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2015년 의료해외진출 준비기관 현황(준비중)

◎ 의료기관 해외진출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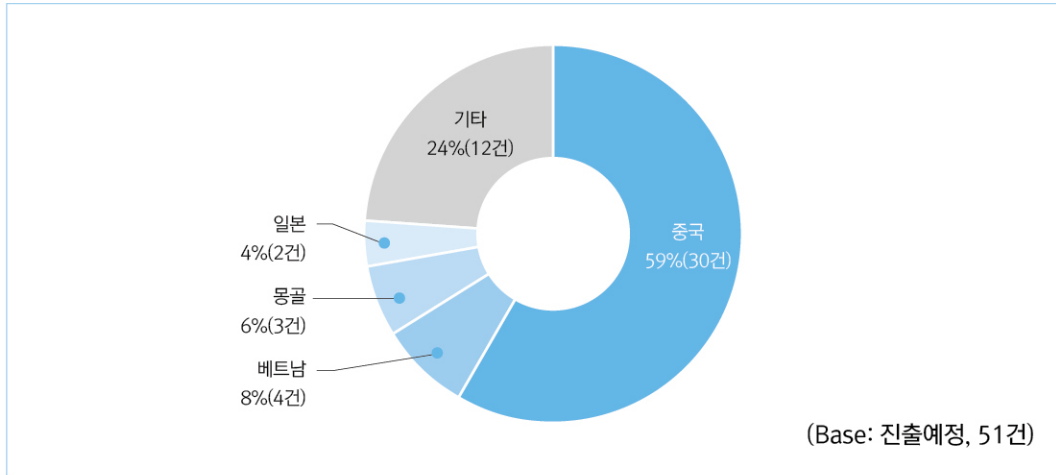
- 총 28개 모기관에서 16개국(기진출 9개국, 미진출 7개국)에 총 51건의 의료해외진출 준비 중
 • '14년 진출준비로 확인된 27건 중, 12건은 현재에도 계속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1건은 '15년도에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4건은 프로젝트를 중단했거나 미확인됨.

* '15년 추가로 발굴된 진출준비는 39건으로 확인

◎ 국가별 진출준비 현황

- 중국 진출 준비 프로젝트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베트남, 몽골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준비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이싱시, 옌타이, 웨양, 창저우, 충칭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향후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쿠웨이트 등 미진출 국가에도 진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에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진출국은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 해당 국가를 선택한 요인으로는 '특화된 의료기술의 수익창출가능성(71%)', '국내 의료시장

포화에 대한 위기의식(57%), '현지파트너 발굴(41%)' 순으로 조사됨(진출준비중 25건 응답 조사결과, 복수응답기준)



[그림 6] 국가별 진출준비 현황

*기타(국가) :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벨라루스, 알제리, 이라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필리핀 각 1건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형태별 진출준비현황

- 합자·합작 형식이 가장 많았고(11건), 이어 위탁경영(9건), 프랜차이즈(7건) 순으로 조사됨.
- 합자·합작의 경우, 전문센터 형태 진출이 과반수(7건)를 나타내었고, 위탁경영*은 대부분(8건) 진출 경험이 있는 기관, 관련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병원급 이상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됨
- * 서울대병원(중국), 보바스기념병원(중국), 아주대의료원(중국) 등 진출준비

<표 3> 형태별 진출예정 현황

진출 예정국	합자/ 합작투자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건설링 계약	단독투자	기타**	총합계
중국	8	5	5	1	3		8	30
베트남	3						1	4
몽골						1	2	3
일본			1	1				2
기타		4	1	1		1	5	12
기타*	11	9	7	3	3	2	16	51

(Base: 진출예정 5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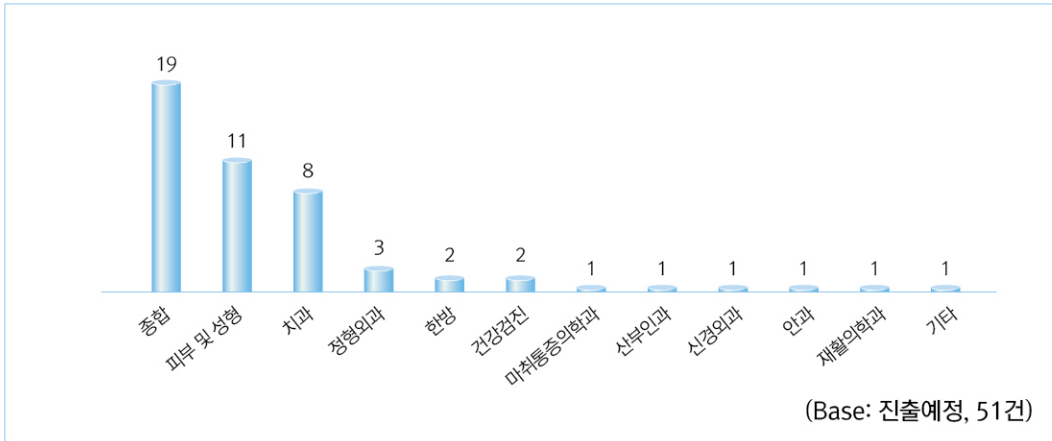
*기타(국가) :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벨라루스, 알제리, 이라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필리핀

**기타(진출형태) : 미정, 연락사무소, 무응답포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진료과목별 진출준비현황

- 종합진료에 대한 진출준비 수요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 및 성형외과(11건), 치과(8건)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진료과목별 진출준비 현황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표 4〉 진료과목별 진출준비 현황

진출 예정국	종합	피부 및 성형	치과	정형외과	한방	건강검진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기타	총합
중국	14	5	7			1			1	1	1		30
베트남	1	1						1				1	4
몽골		1	1	1									3
일본		1			1								2
기타*	4	3		2	1	1	1						12
총합	19	11	8	3	2	2	1	1	1	1	1	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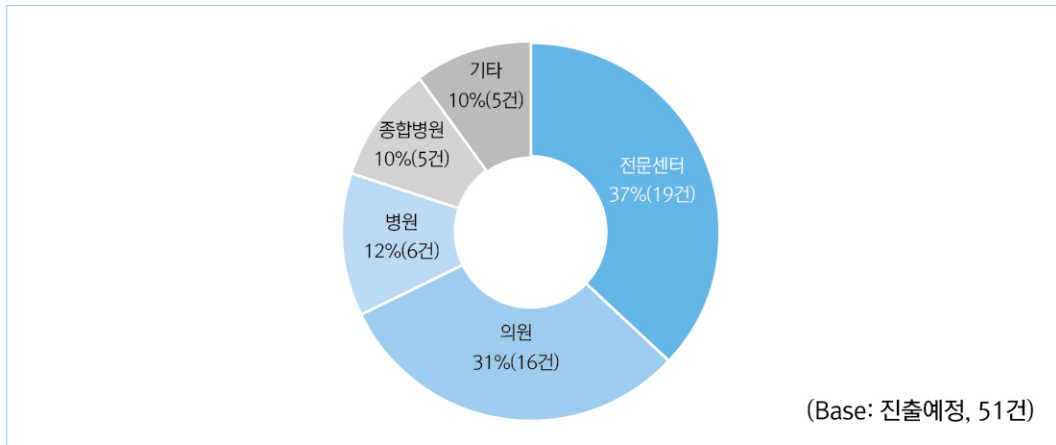
(Base: 진출예정, 51건)

* 기타국 :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벨라루스, 알제리, 이라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필리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결과)

◎ 규모별 진출준비현황

-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준비중인 기관이 1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의원(16건), 병원(6건) 순으로 조사됨.
- 진출형태가 대형화되면서 종합병원 수준 진출도 5건 준비 중임.



[그림 8] 규모별 진출준비 현황

* 기타 : 기타, 미응답, 미정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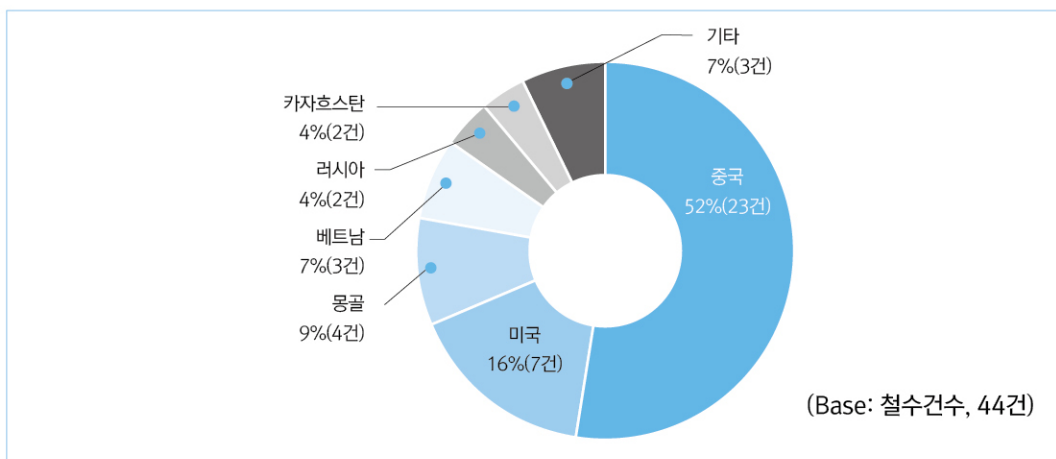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철수 현황

▶ '13년도부터 조사한 의료해외진출 철수는 총 44건으로 파악되고 있음(누적치*)

* '13년 27건¹⁾, '14년 4건, '15년 13건 철수건수 발굴

● (국가별) 중국(23건), 미국(7건), 몽골(4건), 베트남(3건), 러시아(2건), 카자흐스탄(2건), UAE(1건), 대만(1건), 홍콩(1건)으로 나타남.



[그림 9] 국가별 철수현황

* 기타 : UAE, 대만, 홍콩 각 1건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1) '13년 철수 발견 시 자선진료소 1건이 포함되어 28건이었으나, '15년 조사 시 자선진료소를 제외함에 따라 누적건수 27건으로 조정

- (진출형태별) 프랜차이즈(13건), 연락사무소(7건), 합자·합작(7건), 라이선싱(7건), 단독(6건), 위탁경영(3건), 원내원(1건)으로 나타남.

- 진출 형태별로는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13건)보다 프랜차이즈(13건), 위탁경영(3건), 라이선싱(7건) 등 경영계약에 의한 진출(23건) 철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영계약 형태의 진출은 운영 기간이 평균 5년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대형병원의 위탁경영의 경우 평균 계약기간도 5년*임을 감안할 때, 계약 종료 후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시) 서울대병원 SKSH병원(5년), 서울성모병원 마리나 검진센터(5년), 연세대의료원 이싱검진센터(5년)

- (진료과목별) : 피부 및 성형(17건), 종합(8건), 치과(5건), 건강검진(3건), 암(1건), 가정의학과(1건), 신경외과(1건), 심혈관(1건), 임상병리진단(1건), 정형외과(1건), 척추(1건), 한방(1건), 기타(3건)로 나타남.

▣ 의료해외진출(진출준비 포함) 동반 인력 파견(예정)현황

▶ '15년 진출 혹은 진출준비 중인 기관(총 192건)을 대상으로 인력파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력 채용(예정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89개 기관에서 총 659명의 국내 인력을 파견 및 파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직군별) 의사(171명), 간호사(170명), 전문기사(145명), 행정인력(132명) 순으로 나타남.
- (진출형태별) 진출형태별로는 위탁경영으로 진출한 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이 38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최근 중·대형 병원 규모의 위탁운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반 진출 인력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서울대병원 UAE SKSH병원(진출) : 총 259명 파견
- (진출국가별) 진출국가별로는 중동지역(UAE, 카타르)이 323명으로 전체 파견인력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총 276명으로 조사됨.
- 중동지역은 정부간 협력 또는 현지 파트너의 보증에 따라 현지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중국 또한 단기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면허 취득이 용이한 국가에 파견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5〉 지역별 국내 인력 파견(예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의사	간호사	전문기사	행정	기타	합계
중동	66	113	61	81	2	323
중국	73	44	80	42	37	276
그 외	32	13	4	9	2	60
합계	171	170	145	132	41	659

◎ (애로사항) 직원채용 시 언어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표 6〉 해외진출시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2015)

구분	내용
국내 근무 인력	언어 소통의 문제(34.4%)
	전문 의학기술 및 지식부족(18.8%)
	임금 조건(12.5%)
	찾은 이직률(6.3%)
	현지 병원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3.1%)
	의사부족(3.1%)
해외 파견인력	언어 소통의 문제(34.4%)
	임금 조건(18.8%)
	의사 부족(9.4%)
	전문의학 기술 및 지식 부족(3.1%)
	현지 병원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3.1%)
	찾은 이직률(3.1%)
현지 채용 인력	전문의학 기술 및 지식 부족(34.4%)
	언어 소통의 문제(25.0%)
	임금 조건(6.3%)
	찾은 이직률(3.1%)
	의사 부족(3.1%)
	간호사 부족(3.1%)

(Base: 응답 30개기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 결과)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현황

(1) 해외진출 애로사항

◎ 추진단계별 의료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획 및 추진단계까지는 현지시장정보,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가, 운영단계에서는 국내사정(외국환거래법, 전문인력채용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더 높게 나타남.

〈표 7〉 추진단계별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2015)

구분	응답
기획단계	현지정보부족(28.1%)
	현지 법·제도 규제(25.0%)
	현지 네트워크 부재(9.4%)
	국내 법·제도 규제(6.3%)
추진단계	현지 법·제도 규제(31.3%)
	국내 법·제도 규제(12.5%)
	현지 정보 부족(6.3%)
	자금 부족(6.3%)
운영단계	국내 법·제도 규제(15.6%)
	국내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12.5%)
	현지 정보 부족(9.4%)
	현지 홍보 마케팅 능력 부족(9.4%)

(Base: 응답 30개기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결과)

(2)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정보 제공 등이 높게 나타남.
* (기타의견) 모기관의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 대한 지원, 의원간 협력시스템 지원 등

〈표 8〉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수요(2015)

구분	항목	순위
정보제공	진출 대상국의 의료시장, 제도, 진출모델 등 정보제공	3
	국제입찰 참여 가이드라인제시	14
국내 법·제도 개선	비영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근거 법안 마련	4
진출 장벽 완화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외교를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1
	의료분쟁 조정 지원체계 마련	4
정책금융 및 지원 제도 확대	의료수출 특화 정부 차원의 대출 상품 마련	7
	의료수출 특화 정부차원의 펀드 확대 조성	9
	해외투자 의료기관 세제 혜택(이익환수, 세제감면 등)	2
	해외진출 경비 지원(컨설팅, 해외마케팅, 인력교육 등)	4
전문인력 육성	해외 파견을 위한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11
	해외 의료인력 국내 의료기관 연수지원	13
	해외 의료인 국내연수 센터 설립	15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한국의료 홍보 및 시장개척단 활동	12
현지네트워크 지원	정부지원 기관 현지설립(해외지사, 무역관 등)	10
	진출국 및 국내 협력 파트너 연결	7

(Base: 응답 30개기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년도 자체조사결과)

V 요약 및 시사점

- ◎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37%) 향후에도 중국 진출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미용성형분야의 수요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특구 조성, 해외 투자 장려정책 등 중국 중앙정부차원의 시장진입에 대한 개방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진출준비 중 중국 진출이 30건(59%)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진출분야 및 형태는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천병상이상의 대형병원과 검진센터, 재활병원 등의 설립 준비
 - 현재 중국을 포함 진출 운영 중인 18개국에 이어,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의 국가에 진출을 준비 중에 있어 진출국은 점차 다변화될 전망이다.

- ◎ 진출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건강검진 등의 전문특화 진료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한류영향권에 있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피부 및 성형외과가 진출해있고, 치의학분야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치과 진출 역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진출 모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건강검진센터로 특화해 진출하는 경향을 보임.

- ◎ 정부간 협력사업 또는 지원을 통한 대형프로젝트 진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출국별 특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부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UAE에 대형병원이 진출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국가별 또는 권역별로 의료인면허 등 현지 의료법, 의료환경, 의료수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주요 진출과목, 인력진출 규모 등에 차이를 나타냄.
 - 이에 따라 국가별로 현지 수요 및 환경에 따라 진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주로 피부·성형외과 중심으로 다수 진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현지 면허 취득으로 주로 한의원이 진출한 것으로 사료됨.
 -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 의료해외진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15년 12월 제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담 부서* 신설
 - * 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신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역별 TF 신설

- 의료 해외진출의 안정적인 진출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본 조사결과, 해외에 의료기관을 진출하려는 기관이 진출 계획단계 및 운영함에 있어 주요 애로사항으로 현지시장 등에 대한 정보부족, 진출국가의 현지법·제도 규제, 그리고 국내 법·제도 규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강화를 통한 해당국의 의료규제 해소, 진출국의 정확한 시장 및 정보 제공, 해외에 투자하는 의료기관에 세제혜택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
 - * 의료해외진출지원법 제정으로 의료해외진출 지원기관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해외진출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현행 현황조사의 한계점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함.

◇ 현행 현황조사의 한계

* '15년 의료해외진출 조사 시점 전까지('15.12)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신고 또는 등록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제한적인 조사 시행

- ① 조사대상 기관은 진흥원에서 '14년까지 파악된 진출 및 진출준비 기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기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진출기관 등으로 제한됨
- ② 조사 당해연도 이전에 진출한 모기관을 조사연도에 발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해외진출 건수는 조사시점 당시의 누적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1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도입*으로 신규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임
 - * 의료해외진출지원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다만, 신고대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 시행이전에 진출한 기관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철수 포함)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조사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www.khidi.or.kr
KHIDI Brief

2015년 의료해외진출 현황 분석

● 보건산업브리프 2016 Vol.210

| 자료작성 : 진출정보팀 민경민

| 문 의 : 043-713-8325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